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효용성 연구 : 전주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tility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as the
Application of the Family Welfare Service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이성희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이승미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
Assistant Prof. : Sung-Hee, Lee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
Assistant Prof. : Seung-Mi , Lee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결과 분석 |
| II. 가정복지 개념 및 사회복지관의 현황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tility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sisted of three main subjects. (1) A analysis about the programs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2) A analysis about the experience of the user and non-user on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3) A analysis about the demand for family welfare service program. For the data set 398 married women living in Jeonju, were chose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c+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center consisted of child, adolescent, elder, family, a disabled person, community welfare program. Among contents of this program, family welfare program is limited to level

* 본 논문은 '98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of individual needs. (2) The wives experienced of community welfare center did not satisfied about equipment, location,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program. The 44.0 portion of wives not experienced of community welfare center have no plan using of community welfare center. (3) The wives hoped to establish diversed subjects such as parents-child communication, conjugal communication, sexuality education for child, child care techniques, health and nutrition of family member, time management and leisure, and consumer's rights and damage relief.

I. 문제의 제기

가정학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 특히 의식주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왔다. 가정학은 가정생활의 경험적 현상으로부터 과학적 이론을 구성하고, 다시 그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가정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과 실천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중시하는 통합과학, 학제적 과학으로서 발전해 왔다(유영주, 1995). 그러나 가정학이 이와 같은 학문적 목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장과 학문적 성과를 연계하는 노력들은 최근에 와서야 일부 대학에서 평생교육의 형태로, 또는 연구소 중심의 강좌프로그램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흐름 하에 가정학의 성과를 실천의 장과 연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관리학 분야에서는 '가정복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어느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래의 시설수용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정책으로는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 선진 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사후치료적 서비스에서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김명숙, 1995).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달리 보

다 예방적,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는 가정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더욱 필요하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향(정민자, 1998)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복지의 실현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에 관해 학문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와 같은 현상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간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한국여성개발원, 1998)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가정관리학의 노력은 학문적 목적의 적합성 뿐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일환으로서 가정관리학분야에서는 가정복지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천의 장으로서 사회복지관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복지의 개념정의에 관한 문제점과 그 질적인 수준에 대한 논의는 일단 차치하고, 현재 가정복지라는 주제로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회기관이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관의 기본적 필요성 및 성격(김만두, 1991)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 가치관의 혼란 등은 아동,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동시에 가

족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가족기능과 가족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관의 필요성과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정생활의 증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가정복지의 개념과 일치하는 점으로, 가정복지의 실천의 장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측면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지방화시대에 있어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사회복지관이 지닐 수 있는 기능적 역할에 관한 전망을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용현황 및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사회복지관이 가정생활복지 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강, 약점을 진단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사회복지관이 가정생활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 가지는 효용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연구문제2〉 사회복지관 이용자 프로그램 참가 경험 및 인지도 분석과 비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문제3〉 가정복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가정생활 증진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한다.

II. 가정복지의 개념 및 사회복지관의 현황

1. 가정복지의 개념

가정학내에서 가정복지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95년도 대한가정학회의 춘계학술발표회에서이다. 그 이후 가정관리학분야에서는 가정생활의 질 향상, 즉 복지증진이라는 학문적 목표를 현실의 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의 하나로서 가정복지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정복지사’라는 학

회 인증의 자격증제도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정복지의 개념은 기존의 사회복지분야내의 가족복지 개념과 혼선을 빚고 있으며, 가정학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족복지의 개념, 현재까지 가정학내에서 제안되고 있는 가정복지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가정복지 개념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정의되는 가족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족복지란 가족생활의 곤란을 다루며 가족원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원조하며, 일시적 압력이나 자원의 결핍 및 가족내의 인간관계의 결함을 원조하는 서비스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제 노력을 충칭하는 것이다(박송규, 1998). 또한 조홍식(1996) 등의 정의에 의하면, 가족복지란 첫째, 목적면에서 국민의 생활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주체면에서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가 되며, 셋째, 대상면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한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가 되며, 넷째, 수단면에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 등 조직적인 제반활동이 되며, 다섯째, 범위면에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가정학에서 제안되고 있는 가정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영주(1995)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 즉 선별적, 치료적 성격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복지란 문제가정 뿐만 아니라 정상가정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예방적, 조정적, 치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정빈(1997)은 복지의 실현이란 가정생활을 통해 개인과 가정이 안정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가정복지는 생활을 위한 수단적, 기술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정복지의 개념이 생활을 포함한다는 측면 때문에 가족복지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이러한 정의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적 단위로

파악할 때, 가족의 두 하위체계인 인적, 물적 하위체계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두면서 가정생활을 총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체계적 접근법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가정관리학분야에서 지향하는 가정복지의 개념은 문제가정 뿐 아니라 정상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지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복지 개념은 사회복지에서 규정하는 가족복지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내의 가족복지와 가정복지 모두가 기존의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과 같이 개인 단위로 접근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여전히 가족복지의 강조점은 가족의 곤란이나 결함을 원조하는데 있다면 가정복지는 가정생활의 기능이 결핍되거나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가정의 기능강화에 초점을 둘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 스스로가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복지의 생활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곧 가정복지의 범주가 가족 관련 분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가정관리학 분야의 세부 영역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적 특성과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상과 같은 가정복지의 개념이 현실의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별가정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서비스적 방식에 보다 집중되어 있지만, 이와 함께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존속과 기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정책적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가정복지의 효과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가정복지란 서비스 제공과 복지정책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정복지의 개념정의를 토대로, 본 연

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이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가정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사회복지관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가정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관의 현황

사회복지관의 역사적 기원은 1880년대 영국과 미국의 인보관 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보관 운동은 도시화,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도시의 인구집중 그리고 이로 인한 생활환경 등의 사회문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노력으로 빈곤을 필두로 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인들이 빈민지역에 정주하여 빈민들로 하여금 빈곤의 실상과 원인을 터득하고 이에서 탈피하도록 빈민들의 인간적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남기철, 1993).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된 지역사회복지관은 반열방(班列房)이란 칭호로 여성을 위한 계몽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1926년에는 보해여자관을 짓고 여성을 위한 약학을 운영하여 영어, 재봉, 요리 등을 가르쳤다. 감리교 여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초기의 사회관은 그 명칭이 여자관이라 하여 여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는데, 당시 한국의 여성들이 무지하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두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도 여성계몽 및 교육, 육아법, 어린이 건강이 주종을 이루었다(최일섭, 1990). 그 후로 대학 및 민간, 사회, 사업기관에서 복지관사업을 개발 시행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인보관 운동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 것은 1956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당시 주한미군원조기구였던 AFAK의 협조를 받아 신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학생들을 실습과정 속의 봉사를 통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화사회복지관을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문인숙, 1977, 권영준, 1990 재인용)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국가가 이러한 사

회복지관의 설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여 1983년 정부는 사회복지관 사업을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민복지대책사업으로 채택(김종길, 1992, 남기철, 1992 재인용) 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지역사회복지관 사업을 주도하며 지속적인 사회복지관 증설을 지원하였다.

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기준상에 나타나 있는 7개 분야의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 중 6개 분야는 필수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수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 가정복지라는 분야는 하나의 대상별로서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의 사업내

<표 1> 분야별 사업내용

사업분야	사업 내용 (단위 내용)
가정복지	종합상담, 직업·부업기능훈련, 취업·부업알선, 진료실 운영, 부녀자 교양교육
아동복지	탁아사업, 유아원, 어린이 공부방, 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독서실, 기능교실, 취미지도 및 캠프집단지도
노인복지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교육, 노인부업실, 노인학교운영, 노인식사서비스
장애인복지	심신장애자상담, 심신장애자 서비스 알선 및 이송, 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지역복지	주민사회교육, 자원봉사자·지역지도자교육 및 활용, 주민회의, 여가선용시설제공, 후원자개발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사업

자료: 보건사회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별표 1, 1989, 박예순, 1992 재인용.

지역사회복지관을 배치하면서 보건사회부(1989)는 사회복지관의 목표로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보건사회부, 1989)로서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서비스 기관(최일섭, 1985)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지역사회복지, 기타 등의 분야별로 사업을 대별하여 상담서비스, 물적 지원, 캠프서비스, 시설제공, 직업알선, 보건진료, 주민교

용으로는 가정관리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복지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서 단순히 주부의 취업, 부업 및 취미훈련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1.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분석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각종의 내부자료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대상 복지관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복지관으로서, 이 후 편의상 A, B, C, D 복지관으로 명명한다. 분석자료는 각 복지관에서 실시한 '97년도 한해 동안의 복지관 행사실적 자료, '97년도 한해 동안 실시한 프로그램(프로

그램의 내용 등), '97년도 복지관 홍보 팜플렛 등을 기초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설문조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관 이용경험, 인지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문항은 한국여성개발원(1998)의 <구민회관 여성이용자 조사표>를 토대로 본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사회복지관 이용경험 및 인지도를 파악하는 문항은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요구 및 일반적 사항은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조사원 3인이 4개의 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 수강생인 주부들의 응답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관 비이용자의 욕구 및 실태조사는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9월 중순에 일주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및 개별면접방식을 병행하였다. 배부된 자료수는 총 420부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사례수는 398부였다. 또한 자료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χ^2 -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IV. 연구결과 분석

1.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분석

<연구문제1>인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활용도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4개의 사회복지관으로부터 협조 받은 프로그램 자료들을 모아 정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표 2> 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의 구성

영 역	하위 영역	조사 내용
사회복지관 이용경험 및 인지도	이용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프로그램의 참가자, 유형, 기간)/프로그램 이용경로/프로그램 이용동기/불만사항 및 애로사항(교수방법, 강좌기간, 강좌운영방법, 복지관 시설, 위치, 관계자 등)
	비이용자의 경우	비이용 이유/ 다른 기관의 이용여부
프로그램 요구	프로그램의 변화	변화 필요성 여부 및 그 내용/ *가정생활 프로그램의 개설분야/ 활용요구
일반적 사항	개인적 배경	연령/교육정도/ 자녀수/월 평균소득/ 현재 거주지

* 가정생활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족, 가정관리, 가정경제,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해당 전공자가 구성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명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1) 본 연구의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 현장의 적용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님에 따라 본 연구자들이 소속된 학교의 가정복지전공의 구성영역인 가족, 소비자, 가정관리를 중심으로 선정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장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서는 각 학과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요구도 분석을 수반한 내용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分	N(%)	특 성	구 分	N(%)
연 령	20대	55(12.8)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78(19.6)
	30대	182(45.7)		101-150만원	130(32.7)
	40대	117(29.4)		151-200만원	101(25.4)
	50대	30(7.5)		201-300만원	64(16.1)
	60세 이상	14(3.5)		301만원 이상	14(3.5)
	합 계	398(100.0)		무응답	11(2.8)
				합 계	398(100.0)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32(8.0)	자녀수	없 음	52(13.1)
	중졸	48(12.1)		1명	59(14.8)
	고졸	188(47.2)		2명	188(47.2)
	대졸 이상	129(32.4)		3명	76(19.1)
	무응답	1(0.3)		4명 이상	23(5.8)
	합 계	398(100.0)		합 계	398(100.0)
거주지	완산구	299(75.1)	사회복지관 경험 유무	사회복지관 이용자	187(47.5)
	덕진구	90(22.6)		사회복지관 비이용자	211(52.5)
	무응답	9(2.3)		합 계	398(100.0)
	합 계	398(100.0)			

의 내용과 유형을 분석하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실제 활용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등의 영역으로서 6개 분야로 나뉘어져 실시되고 있었다. 사회복지관에서 각 대상별로 나뉘어져 실시되고 있는 사업내용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복지사업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기능교육과 집단활동으로 구분되어 지며, 4개의 복지관 모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청소년복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의 내용을 보면, 4개의 복지관 모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체육과 관련된 기능교육과 캠프 등의 집단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A 복지관에서 벌이고 있는 학교폭력추방사업이 특이하다.

가정복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

의 내용을 보면, 4개의 복지관 모두 교양교육이나 요리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즉, 가정복지라는 개념이 여성개인의 취미생활이나 부업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4개의 복지관에서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C를 제외한 3개의 복지관에서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대상의 사업내용보다 부실함을 알 수 있다. C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었다. D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폐증아동교육센터 운영이 돋보인다.

지역복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제공이나 자원봉사자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D복지관을 제외한 3개의 복지관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표 4〉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분석*

아동복지사업			
A복지관	B종합복지관	C종합복지관	D복지관
기능교육-영어, 한자, 응변, 피아노 컴퓨터, 미술 집단활동-여름/겨울캠프 작품전시, 발표회 방과후 학교운영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영어, 구연동화 집단활동-여름캠프 방과후 학교운영 어린이집 운영	기능교육-컴퓨터, 영어 수학, 글쓰기 집단활동-아동캠프 방과후 학교운영 아동독서실 아동학대예방사업 결손빈곤아동결연 어린이 찾아주기 사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영어, 종이접기 방과후 교실운영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A복지관	B종합복지관	C종합복지관	D복지관
상담실 운영 집단활동-문화교실, 문화 한마당, 자원봉사 캠프(여름)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학교폭력추방 사업	상담실 운영 기능교육-영·수 중학과정, 농구교실, 축구교실 집단활동-자원봉사캠프 (겨울), 고적답사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 자원봉사대 관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운동기구 대여	상담실 운영 기능교육-컴퓨터, 탁구교실, 농구교실, 합기도, 웨스 집단활동-동반, 독서, 사회봉사활동, 캠프 및 국기훈련, 생활예절교육 방과후 공부방 운영	상담실 운영 기능교육-컴퓨터, 탁구교실 청소년 독서실 운영
기정복지사업			
A복지관	B종합복지관	C종합복지관	D복지관
가정문제 상담 자격증교육-한식, 양식 조리반, 출장 요리사 교양교육-컴퓨터	자격증교육-미용, 한식조리반 교양교육-부대학 무료가정법률 상담	가정문제 상담 교양교육-컴퓨터, 탁구, 장구, 노래교실	가정문제 상담 교양교육-컴퓨터, 피아노 한문, 종이접기
노인복지사업			
A복지관	B종합복지관	C종합복지관	D복지관
교양교육-노인청춘학교 무료경로식당	교양교육-노인대학 집단활동-경로잔치, 노인생 일상찾아주기 무료경로식당	교양교육-노인교실 집단활동-경로잔치, 효도관광 무의탁노인 결연사업 무료물리치료실 운영	교양교육-노인학교 무료경로식당 불우노인 결연사업
장애인복지사업			
A복지관	B종합복지관	C종합복지관	D복지관
구직상담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점심도시락 배달	기능교육-발달장애애 조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단활동-장애인아동캠프, 장애인월례모임		기능교육-자폐증아동 교육센터 운영 재가장애인 서비스

〈표 4〉 계속

지역복지사업			
A복지관	B종합복지관	C종합복지관	D복지관
편의시설 제공	편의시설 제공 자원봉사자 교육 무료미용서비스 부녀회 야유회	편의시설 제공 자원봉사대 운영	편의시설 제공 자원봉사자 교육
무료도서 대여			
무료의료서비스-물리치료실, 치료실, 내과, 안과, 한방 등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무료의료서비스-물리치료실, 진료

* 본 자료의 분석 시, 사용한 사업의 내용에 따른 범주 분류의 기준은 연구자들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한 것임.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내용이 권장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필수사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각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관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특성을 갖출 수 있는 자율성과 적극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대상자의 욕구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비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구성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상분야별로 프로그램의 실시가 이루어져 각기 연계성이 없는 단독 프로그램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갖고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이 가정복지의 대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영역으로 독립되어 있음으로 인한 비효과성과 비경제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복지사업은 주로 주부들의 취업, 부업알선 및 취미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가정복지의 본질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넷째, 사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프로그램 각각의 전문성이 의심된다. 실제 사회복지관 종사자 배치 현황을 보면 3-4인에 불과한 적은 수의 사회복지

사의 배치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박예순, 1992)가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사업인 취업 및 기능훈련 등은 대부분 외부강사에 의존하며, 노인복지는 경로행사 등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한 프로그램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2. 사회복지관 이용 경험 및 인지도

〈연구문제2〉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프로그램 참가 경험 및 인지도와 함께 현재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1) 사회복지관 이용자

① 사회복지관 이용경험

사회복지관 이용경험은 사회복지관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가족원을 기입하고 그 가족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부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관 이용경험을 보면, 이용자는 주부가 대다수이었으며(83.4%), 자녀가 이용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이었다. 이용기간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1-3개월 단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용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기능교육과 교양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주로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여가선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사회복지관 이용경험

(N=184~188)

영 역	구 分	빈도 (%)
이 용 자	주 부 자 녀	156 (83.4) 31 (16.6)
이용기간	1개월 이내	39 (21.2)
	1-3개월 미만	68 (37.0)
	3-6개월 미만	32 (17.4)
	6개월 이상	45 (24.4)
이용한 프로그램 내용	기능교육	81 (43.1)
	교양교육	83 (44.1)
	기 타	24 (12.8)

〈표 7〉 사회복지관의 이용동기

(N=184)

이용 동기	빈 도
취미, 여가선용(개인적인 취미생활, 여가활용 을 위해)	43 (23.4)
자아개발(자신의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자)	64 (34.8)
전문성 습득(전문적인 기술의 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48 (26.1)
가정생활증진(행복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 기 위해)	10 (5.4)
교양습득(사회생활을 위한 정보, 지식의 습득 이나 교제의 기회를 위해)	10 (5.4)
기 타	9 (4.9)

② 사회복지관 이용경로 및 동기

사회복지관의 이용경로를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을 보거나(42.8%), 주변사람의 권유(30.0%)등으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관에 직접 문의하는 적극적인 방식은 상당히 저조한 것(13.3%)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의 이용동기를 보면, 자아개발(34.8%)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성 습득(26.1%), 취미, 여가선용(23.4%)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동기는 상당히 개인적인 욕구충족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6〉 사회복지관의 이용경로

(N=180)

이용 경로	빈도
주변사람(먼저 이용해 본 사람, 친구, 동 또는 구청직원)의 권유로	54 (30.0)
반상회보, 번영로·교차로 등의 소식지를 보고 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프로그램 안내 서(전단지)를 보고	25 (13.9) 77 (42.8)
복지관 등에 직접 문의해서	24 (13.3)

③ 사회복지관 이용 후의 불만사항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전체 평가내용을 보면, 평가 영역 중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사회복지관의 시설(73.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불만족의 내용을 보면, 휴식공간의 부족, 공간의 협소, 부

대시설의 미비, 냉난방시설의 미비 등으로 현재 사회복지관 시설 전반에 대한 불만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의 위치(40.9%)도 높은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집에서 너무 멀거나 불편한 교통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사회복지관 모두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 사항으로 표출될 수 있다. 강좌 운영방법(34.6%)의 불만사항으로서 시간대의 비적절성과 일회성으로 인한 효과의 저조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방법에 있어서 다양성과 융통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관 관계자의 불친절, 권위적, 전문성 결여 등(13.3%)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④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변화에의 요구

사회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내용의 다양화(37.3%)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26.6%),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15.8%)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현재 그대로 좋다는 14.1%에 그치고 있어 현재,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에게 조차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인지도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8〉 사회복지관 이용 후의 평가

(N=184)

평가 영역	만족 여부(%)	불만족의 내용 (%)
강좌의 내용	불만족 (1.8)	재미없고 도움이 안된다 (1.8)
	만 족 (98.2)	
강좌의 기간	불만족 (19.3)	기간이 너무 짧다 (19.3)
	만 족 (80.7)	
강좌의 강사	불만족 (9.9)	부실한 내용 및 수강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9.9)
	만 족 (90.1)	
강좌의 운영방법	불만족 (34.6)	시간대의 비적절성 (12.2)
		일회성으로 인한 효과의 미비 (11.5)
		비싼 수강료 (10.9)
	만 족 (65.4)	
복지관의 시설	불만족 (73.6)	부대시설의 미비 (19.5)
		공간의 협소 (23.0)
		휴식공간의 부족 (22.4)
		냉난방 시설의 부족 (8.6)
	만 족 (26.4)	
복지관의 위치	불만족 (40.9)	집에서 너무 멀다 (22.7)
		교통편이 불편하다 (18.2)
	만 족 (59.1)	
복지관 관계자	불만족 (13.3)	불친절, 권위적, 전문성 결여 (13.3)
	만 족 (86.7)	

〈표 9〉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요구

(N=177)

프로그램 변화의 내용	빈도(%)
내용의 다양화	66 (37.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47 (26.6)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28 (15.8)
수강생의 수준을 고려한 내용과 전문적인 강사진	11 (6.2)
현재 그대로 좋다	25 (14.1)

(2) 사회복지관 비이용자

①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사회복지관 비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39.6%)와 사회복지관의 인지부족(21.3%)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관의 운영시간이 주로 오전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며, 사회복지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과이다.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이 있다가 110(53.1%)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모르겠다 71(34.3%), 없다가 20(9.7%)으로서 응답자의 절반수준이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② 다른 사회기관의 이용경험

다른 사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하나의 기관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본 결과, 한 번이

〈표 10〉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N=201)

이용하지 않는 이유	빈도(%)
사회복지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44(21.3)
이용할 만한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14(6.8)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16(7.7)
근처에 사회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37(17.9)
수강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4.8)
일(직업)을 갖고 있어서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80(39.6)

라도 있는 경우가 46(22.3%), 한 번도 없는 경우가 161(77.8%)로서 대다수가 다른 사회기관의 이용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요구도

〈연구문제 3〉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① 가정생활 관련분야의 개설희망강좌

가정생활과 관련된 15개의 하부영역을 제시하여,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강좌에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생활관련분야의 개설 희망 강좌내용으로서 100사례 이상의 응답이 나온 분야만을 살펴보면, 부모자녀와의 대화가 1순위, 가족원의 건강과 영양이 2순위, 부부간의 대화가 3순위, 자녀성교육이 4순위, 자녀양육기술이 5순위로서 비교적 가족관계영역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시간관리와 여가영역,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피해구제 등의 가정관리와 경제영역이 각각 6순위, 7순위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②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복지 프로그램 요구도와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설 희망에 관한 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100사례 이상의 응답이 나온 프로그램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 개설희망 요구의 차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지어 보면, ‘부모자녀대화법’은 연령

〈표 11〉 가정생활 관련분야의 개설 희망 강좌

(N=398)

구분	하부영역	비율	순위
가족관계영역	부부간의 대화	178(44.7)	3
	부모자녀간의 대화	222(55.5)	1
	고부간의 대화	89(22.4)	
	자녀양육기술	143(35.9)	5
	부부의 성	73(18.3)	
	자녀성교육	168(42.2)	4
	노인문제	65(16.3)	
가정관리 및 경제영역	가정생활설계	65(16.3)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126(31.7)	6
	가정의 경제생활과 금전관리	83(20.9)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피해구제	106(26.6)	7
기타 영역	가정생활관련법제(가족법, 세법 등)	84(21.1)	
	가족원의 건강과 영양	195(49.0)	2
	남녀평등문제	89(22.4)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복지 프로그램의 개설 희망 요구 분석#

주부의 연령	부모, 자녀간의 대화법		부부간의 대화법		자녀성교육		자녀양육기술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20대	28(12.7)	27(15.6)	24(13.5)	31(14.4)	24(14.3)	31(13.7)	27(18.9)	28(11.2)
30대	109(49.3)	70(40.5)	87(48.9)	91(42.3)	100(59.5)	79(35.0)	85(59.4)	94(37.5)
40대	72(32.6)	44(25.4)	55(30.9)	61(28.4)	40(23.8)	76(33.6)	27(18.9)	89(35.5)
50대 이상	12(5.4)	32(18.5)	12(6.7)	32(14.9)	4(2.4)	40(17.7)	4(2.8)	40(15.9)
합 계	221(100)	173(100)	178(100)	215(100)	168(100)	226(100)	143(100)	251(100)
	$\chi^2 = 18.80 ***$		$\chi^2 = 6.96$		$\chi^2 = 36.23 ***$		$\chi^2 = 36.17 ***$	
주부의 학력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중졸이하	40(18.2)	40(23.1)	39(21.9)	41(19.2)	22(13.2)	58(25.7)	12(8.4)	68(27.2)
고 졸	109(49.5)	76(43.9)	85(47.8)	99(46.3)	86(51.5)	99(43.8)	78(54.5)	107(42.8)
대 졸	71(32.3)	57(32.9)	54(30.3)	74(34.6)	59(35.3)	69(30.5)	53(37.1)	75(30.0)
합 계	220(100)	173(100)	178(100)	214(100)	167(100)	226(100)	143(100)	250(100)
	$\chi^2 = 1.82$		$\chi^2 = 0.94$		$\chi^2 = 9.24 **$		$\chi^2 = 19.87 ***$	
소득수준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100만원 이하	37(17.1)	39(23.5)	31(17.7)	45(21.7)	26(16.0)	50(22.7)	28(19.7)	48(19.9)
101-150만원	81(37.3)	49(29.5)	64(36.6)	66(31.9)	60(36.8)	70(31.8)	41(28.9)	89(36.9)
151-200만원	56(25.8)	43(25.9)	49(28.0)	50(24.2)	45(27.6)	54(24.5)	39(27.5)	60(24.9)
201만원 이상	43(19.8)	35(21.1)	31(17.7)	46(22.2)	32(19.6)	46(20.9)	34(23.9)	44(18.3)
합 계	217(100)	166(100)	175(100)	207(100)	163(100)	220(100)	142(100)	241(100)
	$\chi^2 = 3.73$		$\chi^2 = 2.88$		$\chi^2 = 3.30$		$\chi^2 = 3.36$	
자녀의 유무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자녀 없음	20(9.0)	32(18.5)	23(12.9)	29(13.5)	13(7.7)	39(17.3)	12(8.4)	40(15.9)
자녀 있음	201(91.0)	141(81.5)	155(87.1)	186(86.5)	155(92.3)	187(82.7)	131(91.6)	211(84.1)
합 계	221(100)	173(100)	178(100)	215(100)	168(100)	226(100)	143(100)	251(100)
	$\chi^2 = 7.56 **$		$\chi^2 = 0.03$		$\chi^2 = 7.62 **$		$\chi^2 = 4.53 *$	
복지관이용유무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이용함	93(42.1)	94(54.3)	62(34.8)	124(57.7)	75(44.6)	112(49.6)	62(43.4)	125(49.8)
이용안함	128(57.9)	79(45.7)	116(65.2)	91(42.3)	93(55.4)	114(50.4)	81(56.6)	126(50.2)
합 계	221(100)	173(100)	178(100)	215(100)	168(100)	226(100)	143(100)	251(100)
	$\chi^2 = 5.84 *$		$\chi^2 = 20.38 ***$		$\chi^2 = 0.93$		$\chi^2 = 1.52$	

〈표 12〉 계속

		가족원의 건강과 영양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주부의 연령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20대	20(10.3)	35(17.6)	23(18.4)	32(12.0)	17(16.0)	38(11.6)	
30대	89(45.6)	90(45.2)	55(44.0)	124(46.4)	45(42.5)	134(41.1)	
40대	67(34.4)	49(24.6)	34(27.2)	82(30.7)	35(33.0)	81(24.8)	
50대 이상	19(9.7)	25(12.6)	14(11.2)	29(10.9)	9(8.5)	35(10.5)	
합 계	195(100)	199(100)	125(100)	267(100)	106(100)	326(100)	
	$\chi^2 = 7.67$		$\chi^2 = 2.96$		$\chi^2 = 2.29$		
주부의 학력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중졸이하	39(20.0)	41(20.7)	21(16.7)	59(22.2)	16(15.1)	64(22.3)	
고 졸	100(51.3)	85(42.9)	59(46.8)	126(47.4)	50(47.2)	135(47.0)	
대 졸	56(28.7)	72(36.4)	46(36.5)	81(30.4)	40(37.7)	88(30.7)	
합 계	195(100)	198(100)	126(100)	266(100)	106(100)	287(100)	
	$\chi^2 = 3.24$		$\chi^2 = 2.25$		$\chi^2 = 3.16$		
소득수준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100만원 이하	32(16.6)	44(23.2)	29(23.4)	47(18.2)	24(23.1)	52(18.6)	
101-150만원	72(37.3)	58(30.5)	40(32.3)	89(34.5)	39(37.5)	91(32.6)	
151-200만원	49(25.4)	50(26.3)	33(26.6)	66(25.6)	29(27.9)	70(25.0)	
201만원 이상	40(20.7)	38(20.0)	22(17.7)	56(21.7)	12(11.5)	66(23.8)	
합 계	193(100)	190(100)	124(100)	258(100)	104(100)	279(100)	
	$\chi^2 = 3.44$		$\chi^2 = 1.92$		$\chi^2 = 6.98$		
자녀의 유무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자녀 없음	17(8.7)	35(17.6)	21(16.7)	31(11.6)	18(17.0)	34(11.8)	
자녀 있음	178(91.3)	164(82.4)	105(83.3)	236(88.4)	88(83.0)	254(88.2)	
합 계	195(100)	199(100)	126(100)	267(100)	106(100)	288(100)	
	$\chi^2 = 6.76 **$		$\chi^2 = 1.90$		$\chi^2 = 1.81$		
복지관이용유무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이용함	76(39.0)	111(55.8)	51(40.5)	135(50.6)	40(37.7)	147(51.0)	
이용안함	119(61.0)	88(44.2)	75(59.5)	132(49.4)	66(62.3)	141(49.0)	
합 계	195(100)	199(100)	126(100)	267(100)	106(100)	288(100)	
	$\chi^2 = 11.15 ***$		$\chi^2 = 3.49$		$\chi^2 = 5.50 *$		

*P<.05, **P<.01, ***P<.001

및 자녀유무와, '부부대화법'은 복지관 이용경험 유무와, '자녀성교육'은 연령, 학력, 자녀유무와, '자녀 양육기술'은 자녀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원 건강과 영양'의 개설 희망 요구의 차이는 자녀유무, 복지관 이용경험 유무와 관련이 있었으며, '시간관리와 여가생활'의 요구도 차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이 없었다. '소비자권리와 피해구제'는 복지관 이용경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비교적 가족관계 분야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요구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의 프로그램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요구도에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표 3>의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의 분포경향과 χ^2 -test의 통계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가족관계 분야의 프로그램은 40대 연령층이, 고졸학력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요구도 빈도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건강,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소비자부문에서는 사회복지관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이 사회복지관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강좌개설희망 요구 비율이 더 높았다.

③ 가정생활관련 프로그램 개설 희망장소

가정생활관련 프로그램의 개설 희망장소를 3곳 선택하라는 설문 결과, 사회복지관이 1순위, 여성회관이 2순위로 나타났다. 대학부설의 사회교육원이나 대학교의 관련학과를 지정하기도 하였다. 개설희망장소의 1순위가 사회복지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재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주민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기타란에 '동사무소'라고 구체적으로 기입한 결과이다. 이의 사례가 비록 낮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응답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정생활교육장소로서 동사무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측면으로 보여진다(<표 13> 참조).

<표 13> 프로그램 개설의 희망 장소*

희망 장소	빈도
사회복지관	317 (79.6)
여성회관	254 (63.8)
YWCA나 YMCA	155 (38.9)
대학부설의 사회교육원	142 (35.7)
대학교의 관련학과	59 (14.8)
기타(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등)	31 (7.8)

* 3장소 선택인 중복응답임

④ 사회복지관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

사회복지관을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방적 질문을 통한 응답내용을 범주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4> 참조).

사회복지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홍보를 가장 많이 지적(32.3%)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다양성(18.7%)으로서, 주말과 야간 시간대의 개설,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관 같은 시설이 좀 더 가까운 곳에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16.1%), 사회복지관내의 부대시설, 공간 확보 등 시설투자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10.1%), 교통편의(8.9%) 등을 지적하였다. 본 응답내용은 개방적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4> 사회복지관 활용방안

유형별 구분	(N=236) N(%)
사회복지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홍보	76(32.3)
사회복지관 같은 시설의 분산설치	38(16.1)
사회복지관내의 공간확보, 시설투자	24(10.1)
강사 및 사회복지관 관계자의 전문성	14(5.9)
저렴한 수강료	13(5.5)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다양성(시간대, 프로그램의 다양화)	44(18.7)
교통편의(셔틀버스 운행 및 노선확충)	21(8.9)
저소득층을 위한 이미지 불식	6(2.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주민들에게 사회복지관이 지닐 수 있는 기능적 역할에 관한 전망을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 및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관이 가정복지의 실천의 장으로서 가지게 되는 효용성을 검토하고, 가정복지의 실천방향을 모색하여 가정생활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개 대상별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은 정부에서 규정한 필수사업의 기준 때문에 4개 복지관의 사업내용이 매우 유사하였으며, 각 사회복지관에 따른 특징적인 내용은 극히 미약하였다. 특히 가정복지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여성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부업을 위한 강좌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한 사회복지관의 실정이며, 사회복지관의 가정복지 개념 정의가 재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용 프로그램의 내용, 이용동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사회복지관의 이용 경향은 개인적인 욕구충족수준, 즉 자격증 취득, 또는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여가선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복지관 이용 후의 평가는 사회복지관시설 전반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관 위치, 강좌운영방법에 대한 불만도 지적되었다. 이 중 프로그램 개선방법으로는 내용의 다양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비이용자는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부족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앞으로의 이용계획을 보면, 비이용자의 절반정도(53.1%)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지만, 또한 나머지 44.0% 정도는 사회복지관의 이용계획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생활과 관련된 개설희망강좌를 분석한 결과, 100사례 이상의 응답이 나온 분야로는 부모자녀와의 대화법, 부부간 대화법, 자녀 성교육, 자녀양육기술의 가족관계영역이 많았고, 다른 영역에서는 가족원의 건강과 영양,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관계 영역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다. 이는 현재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리고 가정복지 프로그램 개설희망장소는 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용에 규정된 가정복지가 가정단위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관점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개인별 접근방식에 따라 실시됨으로써 가정단위의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도 예방적, 보편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일섭(1985)은 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을 1차적인 내담자 즉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또는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요구가 있는 제 개인, 제 집단, 제 가족을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1차적인 대상으로서 지역사회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웃, 우리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이 상실되어 있는 현 실태에서는 사회복지관이 균린의식을 강화시키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협동심을 지역 속에 심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복지관의 제1차 대상을 지역사회에 두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박예순, 1990)하고 있다. 따라서 제반 사회문제가 지역사회 속의 가족 및 족성원으로부터 야기된다고 볼 때, 지역주민의 통합,

연대, 공동적인 관심사에 개입한다는 광의의 사업보다는 지역구성원인 가족원을 한 단위 즉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봄으로써, 이를 1차적 서비스대상으로 하고 그 바탕 위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복지 프로그램 요구도에 있어서 가족관계영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측면은 일반 주부들에게 있어 가족관계영역이 비교적 익숙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투입 후에 나타나는 피드백의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학내의 가족복지분야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으로서 ‘생활’의 측면을 강조하여 가정관리학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정관리학’의 세부전공인 특정한 한 분야만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세부 영역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있을 때만이, 가정관리학이 실천학문으로서 갖게되는 가능성과 적용범위는 더 확대되어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분석 결과, 각 영역에 따라 관련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르게 파악되었다. 즉 가족관계 영역은 연령이나 자녀유무와 같은 가족생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반해 다른 영역의 내용은 가족생활 특성과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복지 프로그램 구성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가족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선정이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비이용자가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층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개설희망장소로서, 기타란에 ‘동사무소’라고 직접 기입 응답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다양화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보다는 기존의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는 앞서 비이용자의 사회복지관 이용계획에 대해서 44.0%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증진을 위한 가정복지서비스의 장소로서 사회복지관의 고려는 재고되어져야 한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활용방안의 개방적 질문에서도 사회복지관의 지리적 위치, 특정지역의 집중으로 인한 불편 등을 지적하면서 집 근처 가까이 사회복지관을 분산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동마다 사회복지관을 신설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동사무소 등의 활용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따라서 가정단위중심,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 중심인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는 사회복지관보다는 보다 다른 장소로 투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만 해도 이미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하는 일환으로, 1999년 4월부터 20개소에 ‘여성작은동호회’를 설치, 시범운영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또한 여전히 취미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지방별로 특색 있게 움직이는 새로운 정책에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가 우리의 새로운 과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복지관의 특성이 개별대상중심, 문제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우리의 진출 분야로서의 새로운 접근방법 또한 필요할 것이다.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주 대상이 되는 중산층 중심, 교육중심의 프로그램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접근, 문제해결적 접근을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또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사회복지관의 서비스가 재가복지서비스로 방향을 바꿔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가정복지가 추구해야 할 방향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할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가정복지사'의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복지사는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 정보제공,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자가 된다. 즉, 가정복지사는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접근하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가정복지사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현재 '한국가정관리학회' 중심으로 끊임없이 논의되는 주제이다. 가정복지사의 교육과정은 일관적인 교육과정과 더불어 각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융통성 있게 첨부되어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며, 현장 투입 후 실시될 수 있는 재교육의 과정이 등급별로 구성되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가정관리학회' 분과 위원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복지사 교육과정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으로써 첫째, 조사대상 사회복지관 소재지역을 전주시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타 지역의 사회복지관 활용방안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관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을 주부의 응답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가족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주부는 타 가족원에 비해 가족구성원의 경험 및 상황을 비교적 잘 인지하며, 가족원의 요구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관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증이 없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이 가정관리학의 진출 분야인 가정복지의 실천의 장으로서 가지는 효용성에 대한 검증을 시도해 본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관리학의 구체적 실천에 대한 고민과 모색의 과정으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뿐만 아니라 상담,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이론과 실제

를 병행하는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영준(1990). 제주사회복지관 주민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 개론」. 흥의재.
- 김명숙(1995). 우리나라 가정복지사업의 실태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제48차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3-20.
- 남기철(1993).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과제중심 모델의 집단 program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송규(1998). 사회복지법론.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란·변화순(1997).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향. 「여성복지의 현황과 전망」. 한일신학대학교 제9회 사회복지학부 추계학술세미나, 19-45.
- 박예순(1992). 한국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사회부(1989).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 유영주(1995). 가정학과 가정복지.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제48차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1-2.
- 임정빈(1997). 가정학 전공자가 가정복지사이다.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2차 임시총회 및 학술대회, 1-20.
- 정민자(1998).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가정복지사 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한국가정관리학회, 9-22.
- 조홍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1997). 「가족복지학」. 학지사.
- 최일섭(198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여성개발원(1998). 지역사회 여성을 위한 구민회관 활용방안 연구—사회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98 연구보고서 240-2